

3. 포교 - '불교유신론'의 포교론을 읽고

세력화·바른 설법·열성을 다 하는가!

<불교유신론>의 '포교론'에서 만해 스님은 다음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세력을 만들라'는 것이다. 세력을 만들어야 한국불교 살아남는다는 것을 만해 스님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교하고 있다. 만해 스님에 의하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가 승리한다. "서양종교가 아무리 세력을 얻어도, 우리 불교는 탁월한 진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서양을 보라. 지금 불교가 득세하고 있다." 흔히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만났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거나 현실도피이다.

불교의 그 대단한 진리, 그런데 지금 인도에 불교가 거의 없다. 그 찬란한 실�크로드의 불교국가들, 지금 거기에 불교가 없다. 이슬람 천지다. 실�크로드의 한복판 아프간의 바비안 대불(大佛),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대포를 맞고 머리가 공개됐다. 그래도 세계불교계는 아무 말도 못한다. 한국불교도의 성지 부산광역시, 지난번 서양종교인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범어사 망하라"고 기도합시다 "통도사 망하라"고 기도합시다 "부산을 하나님의 성지(聖地)로 만듭시다" 하고 외쳐도, 이 땅의 불교도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이 없다. 재가연대에서 몇 마디 흘려 외롭게 외치다가 조용해졌다.

나는 1970-1980년대 서울 동덕여고에서 불교학생회 할 때, 전교생의 반 이상을 불교학생으로 만들었다. 세력이 한번 형성되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매년 600여 명씩 청보리들을 배출해서 대불련으로 보냈다. 여자대학교마다 우리 청보리들이 불교학생회를 만들었다. 대불련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무진장 스님을 모시고 토요일 새벽마다 쫓붙이를 밝이며 새벽법회를 열었다. 방학 때마다 정무 스님을 모시고 용주사, 수덕사, 범주사, 봉선사로 100여 명씩 물러가서 용맹정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무진장 스님, 정무 스님 만나면 길거리서도 3배를 올린다. 3배는 그럴 때 하는 것이다. 피땀 흘리며 전도전법 하는 스님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또 무슨 도(道)가 따로 있겠는가.

둘째, 만해 스님은 '설법 잘 하라'고 포교론에서 강조한다. 만해 스님은 비판하고 있다. "조선 불교 중에서 소위 설법이란 것이 약간 포교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설법하는 바가 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취지가 천박하고 잡박하여서 하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말도 많고 달리고 발전하고 있다. 지금 만일 만해 스님이 와서 듣는다면, "제법 하는 군"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선우' 법회에 정목 스님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흥분했다.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에 중신했고, 피땀 흘리며 헌신봉사하는 자기



만해축전 시인학교는 만해축전 기간 열리는 대표적 문학행사다.

“ 종교의 생존도 약육강식 논리 대입해야 설법할 때 자기 철학 말하는 것은 삼가라 ”

체계를 진술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스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법은 여전히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설법할 때 자기 이야기, 자기 철학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법'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전법'이고 '전법론'이다. 법의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이 법의 바뀌일까? 그것은 곧 고따마 부처님의 근본적 가르침이다. 또는 대승경전의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4제8정도 - 사띠(sati)'로서 기본을 삼고 있다. 법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대중들의 욕구에 상응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다. 해설하면 되는 것이다. '4제8정도 - 사띠'만 해도, 몇 년을 해설해도 그 깊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대중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설하고(示) 실천하도록 권면하고(勸) 법사 스스로 증득해보아야(證) 한다. 이것이 시전(示轉) - 권전(勸轉) - 증전(證轉)의 삼전(三轉)이다.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전법론-설법의 기본 원리이다. 제발 자기 철학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조사 정도 돼야 하는 것이다. 모처럼 절에 온 대중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열성을 다하라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스페인 사람에 '매클라가스가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고, '구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미얀마에서 전도하기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고, 또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중국에서 전도하기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런 만해 스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부끄럽다. 아무 열성 없이, 아무 희생 없이, 아무 섬김 없이 -내가 무슨 법사인가? 섬김 받을 생각, 절 받을 생각이나 하고 앉아서, 허세나 부리고 앉아서 - 내가 무슨 법사인가?

김재영

불교학박사, 청보리 법사



'불교대전'에 팔만대장경을 녹이다

경전 중요구절 뽑아 '불교대전' 집필

"대장경 보편화 작업의 초석 마련" 평가 받아

만해 스님에게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독립투사로서의 모습이다. 둘째는 한국문학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문학가로서의 모습이다. 셋째는 불교를 새롭게 하고 민중불교를 주창한 승려로서의 모습이다.

이 중 만해 스님의 민중불교 정신은 <조선불교유신론>에 잘 드러나는데 불교 혁신을 주장하는 그 내용에서 불교의 대중화·자주화라는 기본사상이 도출된다. 만해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먼저 불교 교리와 제도, 불교 재산을 민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정신은 불교경전을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어졌는데 그 결실이자 바로 <불교대전>이다.

만해 스님은 1910년 원종(圓宗) 종무원의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연합·동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불교동맹조약'을 체결하자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고 인제 백담사를 나섰다. 1911년 순천 송광사로 내려간 만해 스님은 1월 광주 증심사에서 원종을 성토

남은 양산 통도사로부터 화엄강사로 초청받아 통도사를 향했다.

당시 통도사에는 고려대장경 영인본 1511부, 6802권이 소장돼 있었다. 그는 학인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며 2년 여 동안 하루 평균 두 권씩 이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불교 경전에는 팔만대장경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무수한 경전이 있다. 이 중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같은 방대한 경전이 있는가 하면 이를 축약, 262자로 실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있는 등 그 종류와 설한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인들이 난해하게 여길 수 있는 각 경전에는 불교의 핵심 사상 공통적으로 흐르는 데 만해 스님은 그것을 재구성해 대중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만해 스님은 각 경전의 중요한 구절을 뽑아 국한문제로 번역해 주제별 총 9장으로 정리해 <불교대전>을 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만해 유묵. 한 획 한 획 힘이 느껴지는 필체처럼 만해는 <불교대전>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고 그로 인해 불교와 민족이 새롭게 합쳐져 거듭나길 바랐다.

하는 승려귀대회를 열었으며, 순천 송광사에서 석전 스님 등과 함께 이회광을 종문난처(宗門亂處)로 규정하고 원종에 대응하는 '임제종(臨濟宗)'을 창립했다.

이는 당시 조선 불교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불교계를 넘어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스님은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의 현장을 둘러본다. 1912년 다시 귀국해 경남 일대에서 '한일불교동맹조약 철폐운동' 등 불교 자주화를 위해 활동하던 만해 스

성했다. 1914년 4월 당시 임제종 종무원 증양포교당이 있던 부산 범어사에서 이를 간행했다.

<불교대전>은 서품(경전의 중요성), 교리강령(불교교리에 대하여), 불타품(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교화), 신앙품(발심과 신심, 삼보에 대한 신앙), 업연품(업과 무상, 인과응보에 대하여), 자처품(자신에 대한 연대, 대처품(가정, 윤리, 박애, 대인관계 등 사회적 문제), 포교품, 구경품(자신의 해탈과 열반) 등 총 9장으로 돼 있는 데 특이한 점은 가정, 사회, 윤리, 국가 등 대 사회적인 주제를 모은 대처품,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포교품 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과 정진하는 한편 사회구제와 증생교화에 나서야 한다는 만해의 정신을 대변한다.

현재 대장경 보편화 작업의 초석을 마련한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불교대전>을 펴낸 후 만해 스님은 1916년 <유신>을 발간하는 등 잡지간행에도 힘썼다. 또 <불교교육 불교학문독본> <정선강의 체근담 精選講義 體根談>을 펴내는 등 서문포교를 통한 민족의 계몽을 위해 노력했다. 만해 스님은 글로서도 민족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과 시대정신을 일깨웠던 것이다.

노덕현 기자

글 쓰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중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제2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일 시: 2010년 9월 11일 (토)

중·고등부: 오전 11시 ~ 12시 / 초등부: 오후 2시 ~ 4시

장 소: 중·고등부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평택, 남양주
초등부 결선 - 동국대학교(서울) 체육관

대 상: 전국 초, 중,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접수기간: 2010년 7월 12일 ~ 8월 31일

전형료: 무료

시상식: 2010년 10월 23일(토) 예정

시행 유형

고등부 - 객관식 및 주관식 45문항

중등부 - 객관식 및 주관식 40문항

초등부 - 퀴즈(골든벨 형태)

초등부 결선대회 예상문제(결선대회 70% 반영)
8월 20일 이후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및 (사)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예정.

시상내역

● 개인부문

-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명(초, 중, 고 각 1명)
장학금 초등 100만원, 중등 200만원, 고등 300만원
- 최우수상: 동국대 총장상 6명(초, 중, 고 각 2명)
장학금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 100만원
- 우수상: 동국대 정각원장상 9명(초, 중, 고 각 3명)
장학금 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80만원
- 장려상: 동국대 불교대학장상 30명(초, 중, 고 각 10명)
장학금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 입 상: 은정불교문화원 이사장상(참가자 상위 10%)
초등, 중등, 고등 기념품 증정

● 단체부문: 참가자 중 개인상 최다 배출 단체 등에 수여

- 대 상: 조계종 총무원장상 1개 단체 각 100만원
- 최우수상: 동국대 이사장상, 조계종 포교원장상 2개 단체 각 80만원
- 우수상: (사)동원 이사장,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장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6개 단체 각 50만원

● 특별부문: 참가자 중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 환경보호 등 불교신행 활동의 모범이 있어 추천된 자 (추천양식에 사할 주지스님, 학교장 추천 요망)

특별상: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5명 각 100만원

※ 대입 입학 전형 반영

동국대학교,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 등 입학전형 시 반영 자료로 활용(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출제범위

- 중·고등부 - 경시대회의 출제범위는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낸 <청소년불교입문>과 <부처님의 생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함.
- 초등부 - <애들이, 절에 가자>(조계종출판사)와 <깃타르의 꿈, 세상을 바꾸다>(불광출판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함.

접수처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번지 은정빌딩 601호
대표문의: 02-515-9351,
이메일: bulgyo2010@naver.com

인터넷접수: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
(www.eunjing.or.kr)에서 소장양식을 작성
(사진은 스캔하여 업로드)

우 편: 지원서 작성 후 등기우편 접수
(2010년 8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 우편접수시 지원서에 반드시 사진(3×4) 2매 부착요망
※ 결과발표: 10월 초(추후공지)